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폭력 사랑법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무력한 법이 아닙니다. 월터 윙크는 예수님의 비폭력을 '전투적 비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비폭력의 사랑법으로 말씀하신 명령들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을까요?

오른편 뺨을 맞은 것은 모욕적으로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것은 노예를 다룰 때 하던 행동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것은 그것 외에 더 이상 착취할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군법상 누군가에게 자기 짐을 대신 지우고, 5리를 가게 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주 백성 중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왼편 뺨까지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대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전환하자는 요청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체를 금기로 여겼기 때문에 벗은 자보다 그렇게 만든 자를 더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악독함과 잔혹한 착취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법이 허용한 특권은 꼭 5리에만 해당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리를 더 간다는 것은 로마 병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원수와 사랑'이라는 모순된 두 단어가 조합됩니다.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소유로 나누고 차별하는 구조와 관계, 경제 논리와 힘의 논리로 자행되는 모든 착취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써 약자가 강자가 되는 놀라운 전복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나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까?

- ① 나라면 세 가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 ②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까?